

E. Husserl의 發生的 知覺論에 관한 考察 *

趙 光 濟

目 次

머 리 말	
제 1 부 지각의 역사성	§ 6. 지각에서의 자아와 역사성
§ 1. 감각자료로의 근원적 귀환	제 2 부 지각에 대한 발생적 고찰
§ 2. 감각자료에 대한 규정	§ 7. 축발의 현상
§ 3. 감각자료와 대상의 음영점	§ 8. 수용의 과정
§ 4. 지각의 지평구조	§ 9. 관찰적 지각
§ 5. 지각대상의 발생적 역사	결 론
	참고문헌

머 리 말

지각은 제반 의식작용의 기반이다. 즉, 지각하지 않고서 판단이 생겨날 수 없으며 지각하지 않고서 소원 (*wünschen*)이나 가치판단 (*wertnehmen*)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기억이나 상상과 같은 의식작용도 지각이 기반이 되어 비로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과 의식연관적인 지형적 대상에 대한 고찰을 주로 하는 Husserl의 현상학에 있어서 지각에 대한 고찰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Husserl은 자신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 (*statische Phänomenologie*)과 발생적 현상학 (*genetische Phänomenologie*)으로 구분하고 있어 지각론 역시 두 가지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Husserl이 행한 지각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그의 후기저작이라 할 수 있는 PS. 와 EU.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런데 이 두 저작은 발생적 현상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저작에서는 발생적 지각론이 두드러지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Husserl의 발생적 지각론을 고찰하되 PS. 와 EU.를 중심으로, 제 1 부에서는 정적현상학에서 발생적 현상학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조로 등장하는 지각의 역사성을 도출하고, 제 2 부에서는 이 지각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발생적 지각론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本論文은 1984 年度 碩士學位 論文임.

제 1 부 지각의 역사성 (Geschichtlichkeit)

§ 1. 감각자료에로의 근원적인 귀환

우리가 “S는 P이다”라는 판단을 주제로 삼아, 이러한 판단이 어떻게 성립되며 어떻게 타당성을 지니는가를 인식론적으로 구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판단이 외의 무엇인가에로 다시 한번 접근하여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판단이 외의 무엇이 판단하는 의식작용과 판단되는 사태 (Sachverhalt)라고 한다면, 이 판단하는 의식작용과 판단되는 사태가 무엇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며 성립되는가를 또 다시 물을 수 있다. 그리하여, 판단하는 의식작용은 기체 (Substrat)로서의 대상 S와 속성 (Eigenschaft)으로서의 규정 P에 대한 분절된 의식작용 (gegliederter Bewußtseinsakt)을 기초로 하여 판단되는 사태 또한 기체로서의 대상 S와 속성으로서의 규정 P라는 범주적으로 분절된 사상 (事象)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때 통일된 대상 S와 통일된 규정 P는 무엇을 기초로 하여 어떻게 성립되는가라고 또 다시 환문할 수가 있다. 한편, 대상 S와 규정 P에 대한 각각의 분절된 의식작용 역시 어떠한 의식을 기초로 하여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대해 환문할 수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우리는 반성적인 의식을 통해 인식론적인 근원적인 장소로 향하여 굴착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때 이러한 굴착과정을 통하여 반성의 대상이 되는 의식작용이나 의식상관적인 사상들은 더욱 더 근원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한편, 여기서 “근원적”이라는 말은 “단순화된다”는 의미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같은 반성적 환문을 계속하여 근원적인 장소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기초해 주는 상대적으로 더 근원적인 사상을 발견함으로써 기초를 받는 상대적으로 덜 근원적인 사상을 편의상 벗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상이 단순하다고 해서 그 고찰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단순해지는 만큼 더 많은 층의 반성이 수행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식의 근원을 향하여 물어가는 작업을 Husserl은 선험적 (transzental)이라 부른다.¹⁾ 따라서, 그러한 물음을 가능케 하는 반성은 곧 선험적 반성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선험적인 반성에 의한 물음이 무한정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무한정 계속될 수가 있다면 근원적인 장소를 찾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가 무산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무슨 이유로 멈추어야만 하는가? 만약에 이러한 반성적 환문이 미진하게 혹은 과도하게 진행되어 형이상학적인 요청을 하게 되거나 회의론에 빠져드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위의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1) Krisis, 100, EU, 48f, (숫자는 면수 표기)

것은 참이다.”라고 하는 Aristoteles의 말²⁾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야 할 조건은 인식론적인 환문에 있어서 존재여부는 의식여부(혹은 인식여부)에 귀결된다는 사실이다.³⁾

따라서, 결국은 선형적인 환문을 미진하게 함으로써 반성적으로 의식에 나타날 수⁴⁾ 있는 더욱 근원적인 사상에 접근하지 못하여 의식에 나타나지 않는 개념을, 즉 알 수 없는 개념을 설명을 위한 요청으로 도입함으로써 형이상학의 길에 빠져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혹은 반성적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다루되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몰고 나가 의식에 나타나는 여타의 것을 도와시함으로써 극단적인 회의론에 빠져들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가장 원만한 인식론을 정초하기 위한 반성적 환문의 적정한 한계선을 설정하는 일이 본 §1.의 과제가 된다.

대상적인 측면에 주시하여⁵⁾ 반성적 환문을 계속해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영역은 무엇인가? 즉, 그 이상으로 물어들어가면 가장 넓은 의미의 대상이라고 하는 어의가 해소 내지는 봉파될 수 밖에 없는 마지막 영역이 무엇인가? 이에 필자는 *Ideen I. § 97*을 토대로 예증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내가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주사위 하나를 보고 있다고 하자. 나는 “사물인 주사위는 정육면체이다.”라는 지각적인 내용을 지닐 수가 있다. 이 때, 나의 지각 내용에는 “사물”과 “주사위” 그리고 “정육면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물”과 “주사위”라는 항은 현재의 지각상태에서 볼 때 “정육면체”라는 항에 기초해 있다. 이 때, “기초해 있다.”는 말은 “사물”이나 “주사위”라는 지각내용이 없이도 “정육면체”라는 지각내용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즉, 모양에 관한 지각이 없이는 “사물”이나 “주사위”에 대한 지각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정육면체”라는 항 대신에 “회다” 혹은 “단단하다”라는 항이 대치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즉, 감각적인 통일성이 없이는 “사물”이나 “주사위”라는 구체적인 대상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정육면체”라는 사상(事象)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실제로 의식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식되는 것은 머리의 움직임이나 손의 작동에 의해 다양

2) Aristotels, *Metaphysica*, 1011b.

3) 이러한 사실은 *Ideen I. 3절 3장을* 중심한 지향구조의 분석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4) 이 때, 반성적 의식에 나타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생성소멸하는 의식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개별적인 의식사실들 간의 연관을 판통하고 있는 필연적인 구조적 형식들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 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연구대상과 다른 철학으로서의 인식론의 연구대상이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성립된다.

5) 의식적인 측면에 주시할 때와 대상적인 측면에 주시할 때에 환문해 들어갈 수 있는 한계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내적 시간의식과 같은 일종의 비대상적인 의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게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이그려진 묘한 형태들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육면체”라는 사상은 수시로 그 때 그 때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현출하는 감각내용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다양하게 현출하는 감각내용은 무엇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 다시 주사위라는 사물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양한 감각의 현출이 주사위라는 사물에 기초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반성과는 전혀 다른 류의 반성, 굳이 말하자면 주어져 있는 것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지 않은 것에서 주어진 것을 설명하는 일종의 자연적 태도에서의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의식에 주어져 있다는 것인 바, 의식연관적 혹은 주관연관적으로 볼 때에 가장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때 그 때 수시로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주어지는 감각현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각현출이 기초해 있는 또 다른 대상적인 영역으로 찾아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의식연관성을 파괴하고 그리하여 소위 사변적인 이성에 굽복하는 풀이 되는 것이다.

Husserl은 예증에서처럼 눈의 움직임이나 손의 동작 등을 “운동감각” (*Bewegungs-empfindungen* 혹은 *Kinästhesia*)이라 하고 이 운동감각의 체계에 의하여 감각현출의 체계가 동기지워진다고 한다.⁶⁾ 그리고 이러한 운동감각의 동기부여에 의해 다양하게 현출되는 것을 “감각내용”⁷⁾ (*Empfindungsinhalt*), 전문적인 용어로는 “감성적 질료”⁸⁾ (*sensuelle Stoff*)라 일컫고 있다. 한편, 이를 단적으로 “소재” (*Stoff*)라 하기도 하고 “감성적 소재” (*der sensuelle oder simliche Stoff*)라 하기도 한다.⁹⁾ 또한 “그림” (*Bild*)이라 하기도 하고 전체에 대비시켜 일면 (*Aspekt*)이라 하기도 한다.¹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감각자료” (*Empfindungsdaten*)라 일컫는다.¹¹⁾

한편, Husserl은 이러한 감각현출의 영역을 지각되는 “정육면체”라는 통일된 대상으로서의 지각노에마의 지향적 영역과 구분하여 내실적 영역이라 하고 있다.¹²⁾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Husserl의 현상학적 환원은 바로 이러한 내실적 의식영역에서 다양하게 현출하는 감각적 질료의 영역을 발견하는 작업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역이 역시 내실적 영역에 속하는 노에시스적 (*noetische*)인 형식과 더불어 절대적 영역 (*eine absolute Sphäre*)이며, 따라서 초재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인식의 본질과 가능성에 관계되는 가장 심오한 인식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천 (*Ur-*

6) PS. 13f. EU. 89. *Ideen* II. 57f.

7) *Ideen* I. 208.

8) *Ideen* I. 209.

9) *Ideen* I. 210.

10) EU. 88. *Krisis* 174.

11) *Ideen* I. 94.

12) *Ideen* I. § 41, 242, 244.

uelle)이 된다는 것이다.¹³⁾

이렇게 볼 때, 이제까지 우리가 수행한 반성적 환문의 과정이 현상학적 환원과 일맥상 통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문의 과정을 통하여 소위 내실적 의식영역에 속하는 감각적 질료들의 다양한 혈출을 근원적으로 발견하고, 거기에서 지각론의 출발점을 획득하는 것이 현상학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¹⁴⁾

§ 2. 감각자료에 대한 규정

이제, 우리는 감각자료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발생적 고찰에 대한 단서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각에 대한 발생적 고찰의 근거가 되는 지각의 역사성 (Geschichtlichkeit) 혹은 발생 (Genesis)의 획득을 기하고자 한다.

Husserl은, “외적지각의 표출하는 내용들은 일상적인 좁은 의미의 감각이라는 개념을 정의한다.”고 함으로써¹⁵⁾ 감각자료가 외적지각을 통하여 표출되는 내용들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Husserl은 “모든 지각단계에는 필연적으로 색음영들, 모양음영들 등에서의 규정된 형태가 속한다. 이러한 것들은 ‘감각자료’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 ‘파악들’을 통하여 지각의 구체적인 통일태로 생화되며 (beseelt) 이러한 생화작용에서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기능으로써 우리가 색, 모양 등에 ‘대한 혈출’이라고 일컫는 것을 일관되게 형성한다”고 함으로써¹⁶⁾ 감각자료를 파악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지각의 구체적인 통일태, 즉 Noema에서의 의미 (Sinn)와 구별하고 있다.

여기에서 Husserl이 내리고 있는 감각자료에 대한 규정은,

1) 감각자료는 외적지각을 통하여 표출된다.

2) 감각자료는 지각의 구체적인 통일태로서의 노에마적 의미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규정 1)에 연관된 문제로서 감각자료의 공간성의 문제가 있다. Husserl은, “… 구체적인 감각내용들의 (예를 들면, 시각적 감각자료의 장에서의 시각적인 감각내용의) 내재적 본질에 속하는 ‘확장’ (Ausbreitung) ……”¹⁷⁾ 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비록 객관적으로 공간적인 ‘연장’ (Ausdehnung)과 구분하고 있진 하지만 감각자료에 대한 공간성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Husserl은 소위 내실적 의식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감각자료가 공간성을 띤다는 말을 한 셈이 된다. 이는 내실적 의식영역이라는 어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다.

13) Ideen I. 245.

14) 한전숙, “현상학에 있어서의 경험의 의의 (II)” 철학연구 제12집, 철학연구회 편. 1977. p. 83.에서는 이러한 감각혈출로 소급해 들어가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발생적 고찰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15) LU. II / 2. 79.

16) Ideen I. 94.

17) Ideen I. 197.

그러나, 이에 대해 H.U. Asemissen은, “도대체 감각의 공간적인 규정이 순수의식의 내실적 내용으로서의 감각의 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가?”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Husserl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Asemissen은 양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¹⁸⁾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Asemissen의 의식의 내실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Husserl의 규정과는 달리 고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감각자료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해 감으로써 간접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여간 감각자료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정은,

3) 감각자료는 공간성을 띤다는 것이다.

이제 2)의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자.

Husserl은 LU. II/1, 411, 415, 146 등에서 구체적인 작용체험의 성분으로서 작용의 Qualität와 Materie를 언급하고서 Materie를 “작용에 처음으로 대상적인 것과의 관계를 부여하는 것” 혹은 “작용에 대상적인 것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것”이라 하여 이 Materie를 감각자료로서 다소 혼동하게끔 하고 있으나, Ideen I. 316 f에 이르러 Materie를 “노에마적인 핵”(noematischer Kern)이라 함으로써 감각자료와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LU. II/2, 180에서 감성영역의 본질적인 구분이라 일컫는 “반성내용”과 “원초적내용”에 대해 전자를 직관의 순수 범주적 대상이라 하고 후자를 직관의 순수 감성적 대상이라 함으로써 뚜렷이 구분한 것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뚜렷한 구분은 미묘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Noema의 의미(Sinn: 반성내용)는 의식의 내실적 영역에 속하는 감각자료와 이에 형식을 부여하는 생화하는 파악작용에 의하여 높은 차원의 것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만약에 감각자료 자체에 대한 규정을 얻기 위하여 이와 분명히 구분되는 생화하는 파악작용의 노에시스적인 계기를 사상한다고 할 때, 감각자료는 모든 형식이 배제된 소위 순수한 감각자료라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는 3)의 규정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3)의 규정에서는 감각자료가 공간성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감각자료를 생화하는 파악작용이 가능지가 이전의 혹은 이러한 파악작용을 수반함이 없이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본다면 감각자료는 형식이 전혀 없는, 즉 가장 넓은 의미의 지향성을 갖지 않는 소재가 된다. 왜냐하면, 형식이란 노에시스적인 지향적인 작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Husserl은 그 자체로서 “무엇에 대한 의식”(Bewußtsein von etwas)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감각자료가 지향성의 담지자(Träger einer Intentionalität)라고 함으로써²⁰⁾ 순수한 그 무엇으로서의 감각자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18) H.U. Asemissen: "Strukturanalytische Probleme der Wahrnehmung in der Phänomenologie Husserls" Kölner Univ.-verlag, 1957. S. 25.

19) LU. II/2, 180.

20) Ideen. I. 81.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고찰을 위해서는, Husserl의 *Ideen II*. 57f에서 독특하게 행하고 있는 감각에 대한 구별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Husserl은 감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파악에 의하여 (자신에) 상응하는 사물 자체의 징표를 음영지우면서 구성하는 감각과, 이러한 파악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모든 류의 파악에 필연적으로 관여하는 감각의 구별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전자를 징표감각 (*Merkmalesempfindung*), 후자를 운동 감각적 감각 (*kinästhetische Empfindung*)이라 일컬고 있다. 이 때, 후자의 감각은 사실 신체에 관한 감각으로서 이제까지 고찰한 감각자료와는 독립된 독특한 감각이다. 그런데, Husserl은 이 양자의 관계를 후자가 전자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운동감각적 감각은 징표감각을 “만일에……그러면” (*wenn-so*) 혹은 “~하기 때문에 ~한” (*weil-so*)이라는 신체에 속한 자발성, 즉 “나는 나를 움직인다.” 혹은 “나는 ~할 수 있다.”는 특성에 근거한 동기부여 방식에 의해 동기지운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감각자료인 징표감각은 항상 운동감각적 감각에 의해서만 현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동기부여를 사상한 소위 독립적인 순수 감각자료란 성립할 수 없다.²¹⁾ 또한 운동감각적 감각은 모든 류의 파악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징표감각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생화하는 작용인 파악이 간접적으로나마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²⁾ 이에 우리는 감각자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 즉,

4) 감각자료는 항상 운동감각적 감각에 의해 동기지워짐으로써 현출된다.

5) 감각자료가 현출되는 데에는 생화하는 파악이 관계된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예증적인 논의를 끝으로 §2의 고찰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주사위를 손에 쥐고서 링글링글 돌려 보자. 그리고 주사위의 모양을 주시해 보자. 그러면,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의 감각에 대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돌리는 동안 계속 현출되는 논리적으로 볼 때 무한히 다양한 이그러진 묘한 모양들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다양한 현출에도 불구하고 주사위 자체의 통일된 모양, 일컬자면 정육면체라는 일정한 모양이다. 이제까지 고찰한 감각자료의 규정에 의하면 전자가 징표감각으로서의 감각자료에 속하는 반면 후자는 노에마적인 의미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동작은 운동감각적 감각에 속하는 것이다.

21) 이는 §1에서 감각자료에 근원적인 귀환을 하기 위하여 *Ideen I*. §97에 힘입어 예증적으로 수행한 반성적인 굴착과정에서 이미 예시된 것이다.

22) A. Aguirre은 그의 저서, “*Genetische Phänomenologie und Reduktion*”, Martinus Nijhoff/Den Haag, 1970. S. 133에서 “내가 파악함으로써 (통각함으로써), 나는 질료를 현출로 끌어 올린다.”는 묘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질료와 질료의 현출 즉, 감각자료와 감각자료의 현출을 구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실상 현출되지 아니한 감각자료는 인식론적으로 특히 의식연관성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학적 인식론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가 내실적 의식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분명히 나는 바깥에 있는 다양한 현출로서의 모양들을 보고 있었던게 아닌가? 그러나, 다양한 현출 자체가 의식 바깥에 있는 초재로서 있을 수는 없으며 또한 지향적 내재로서의 노에마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대상적인 계기에서의 내실적 의식영역을 이러한 감각자료의 현출의 상황에 비추어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 고찰한 바에 의하면, 특히 3), 4), 5)의 규정에 의하면 감각자료는 이미 선구성되어 있는 감각장 내에서만 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감각장은 단순한 혼돈 즉 “자료들에 대한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규정된 구조의 드러남 (*Abgehobenheit*)과 분절된 개별성의 장인 것이다.²³⁾ 이처럼 규정된 구조를 지닌 감각장 내에서 성립되는 감각자료는 이미 지각체험의 흐름 속에서 발생적으로 획득된 선구조를 통하여 현출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미 발생적으로 획득된 선구조를 전혀 기초로 하고 있지 않은 어떤 혼돈한 감각자료가 느닷없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감각자료는 심지어 우리의 의식에 들어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는, 감각자료들이 다양하게 현출될 때 이미 우리는 색감각인지 모양감각인지 혹은 음감각인지를 능동적인 의식이 없이도 구분하여 나아가서는 개개의 다른 대상들에 각각 속해 있는 감각들임을 수동적으로 구분한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준다.

§ 3. 감각자료와 대상의 음영짐

§ 2에서 감각자료는 운동감각적 감각에 의해 주어지는 동기화와 파악에 연관하여 현출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감각자료는 이미 선구성되어 있는 감각장 내에서만 현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현출되는 감각자료는 결코 지각의 대상이 아니다. 지각은 이러한 감각자료의 현출을 넘어서서 일정하게 통일된 그 무엇을 목표로 삼는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이 무한히 다양하게 현출되는 감각자료를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되는데 이 때에는 실상 아무것도 지각함이 없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는 지각의 고유한 성격에 의해 감각자료의 다양한 현출은 음영짐 (*sich abschatten*) 혹은 음영 (*Abschattung*)이라는 고유한 사상을 수반하게 된다. 즉 만약에 지각이 다양하게 그 때 그 때 현출되는 감각자료에만 만족하게 된다면 굳이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음영이라는 사상이 의식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의 고유한 성격에 대해 A. Aguirre는, “현출의 체험 속에서 나는 대상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다.²⁴⁾ 즉, 지각은 항상 통일된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Husserl이 “색음영들, 모양음영들……… 그러한 것들을 ‘감각자료’로 간주된다.”라든가²⁵⁾

23) EU. 75.

24) A. Aguirre, a, a, O. 133.

25) Ideen I. 94.

“연속적인 현출다양과 음영다양의 체계”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²⁶⁾ 바로 이러한 지각의 고유한 성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각의 고유한 성격때문에 생겨나는 음영이라는 사상은 감각자료와 지각이 목표로 하는 대상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Husserl은, “…… 구체적인 체험의 질료적인 계기 안에서 노에마적인 혹은 ‘객관적인’ 색이 음영진다.”²⁷⁾ “변화하는 지각의식의 연속적인 통일성 안에서 동일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의식되는 동일한 노에마적인 색은 감각색들의 연속적인 다양성 안에서 음영진다.”²⁸⁾ “……다양으로서의 내실적 요소 내에서 ‘표출되는 것’ 즉 ‘음영지는 것’은 노에마에 속한다.”²⁹⁾ 혹은 “우리는 여기에서 ‘음영’이라는 표현이 다의적인 것을 본다. 모든 일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이 그 일면 안에서 음영진다는 사실이다. ……”²⁹⁾ 등의 표현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Husserl이 음영에 관한 표현들을 조심스럽게 구분하여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Husserl은 “음영”이라는 말을 감각자료의 동의어처럼 감각자료와 바꾸어 쓰고 있으나 노에마나 객관적 대상과는 바꾸어 쓰지 않는다. 그리고 Husserl은 노에마나 객관적 대상이 “음영진다”는 표현은 하고 있으나 감각자료가 “음영진다”는 표현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이는 감각자료가 노에마 혹은 객관적 대상에 대해 ‘음영을 주며’ 반대로 노에마 혹은 객관적 대상은 ‘감각자료 안에서’(‘감각자료에 의해’)라는 표현은 음영이 지각의 고유한 성격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음영진다’는 것을 합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에마 혹은 객관적 대상이 음영진다는 사실은 지각의 발생적 고찰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각이 공간적 대상에 대한 충전된 지각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대상은 항상 음영을 지니고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사정은 결코 종식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Husserl은, “지각되는 것이 그 지각내용에 있어 완전히 소진된 외적지각은 생각할 수 없으며, 완결된 지각 내에서 가장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전면적(全面的)으로 즉, 감각적인 직관적 징표가 전면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지각대상은 생각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³⁰⁾ 이는 대상에 대한 충전적 명증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정적현상학에서의 제반 고찰들을 의심스럽게 하는 심각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외적지각은 본질상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수행하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본질상 모순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각이 감각자료 안에서 음영지는

26) Ideen I. 93.

27) Ideen I. 243.

28) Ideen I. 244.

29) Ideen I. 130..

30) PS. 3.

객관적 대상 혹은 노에마를 지각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모든 지각단계에서 소위 ‘음영진 부분’ 혹은 ‘보이지 않는 부분’ 혹은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을 함께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같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의 구분은 Husserl의 지각론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Husserl은 “원본적 의식은, 일면들(보이는 면들)에 대한 실제적이며 본래적으로 원본적인 의식과 원본적이지 않은 다른 면들(보이지 않는 면들)에 대한 공의식(共意識 *Mitbewußtsein*)이라는 형식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언명하고 있다. 그리고 곧 이어 이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지각작용은 의식작용적으로(noetisch) 말하자면, 표출되는 것을 원본적인 표출의 방식 안에서 지관화하는 실제적인 표출작용과 가능적인 새로운 지각들을 지시하는 공지시(空指示 : *leeres Indizieren*)의 혼합이다. 그리고 노에마적으로 볼 때, 지각된 것은 그 때 그 때 주어진 〈일면〉이 동일한 그 대상에 대하여 주어져 있지 않은 다른 비소여(非所與 : *Nichtgegebenes*)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음영진 소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³¹⁾

이 때의 지시방식에 대해서는 § 4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단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현출되는 측면들은 가능적으로 무한히 열려 있는 공지시의 체계에 둘러싸임으로써만 무엇에 대한 현출, 즉 대상에 대한 현출이 된다는 사실이다.

§ 4. 지각의 지평구조

§ 3에서 음영이 지는 것은 감각자료가 아닌 객관적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칠했다. 따라서 객관적 대상 혹은 노에마를 목표로 하는 지각은 음영에 의해 가리워지는 부분, 즉 실제로 의식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자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운명을 지닌 것이었다. 또한 지각의 대상은 그 자체의 성격상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만 성립하며, 지각의 흐름에 있어서 항상 가능적으로 열려 있는 부분을 통해서만 성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 일정한 지각대상에 대해 이처럼 가능적으로 열려 있는 부분들의 전체를 지평(Horizont), 특히 다른 대상과의 연관이 없이 일정한 대상 자체 내에서 열려 있는 지평을 내적지평(Innenhorizont)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지평에 대한 의식을 지평의식³²⁾ (*Horizontsbewußtsein*)이라 하기도 하고, 함께 의식되는 것을 의식한다 하여 공의식³³⁾ (共意識 ; *Mitbewußtsein*)이라 하기도 한다. 한편, 지평의식은 비어 있는 것을 의식한다 하여 공의식(空意識 ; *Leerbewußtsein*)³⁴⁾이라 하기도 한다. 이에 상관적으로 지평이 항상 비어

31) PS. 4 f

32) Krisis. § 47.

33) PS. 4.

34) PS. 9.

있다고 하여 공지평³⁵⁾ (空地平 ; Leerhorizont)이라 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 때 현출되어 의식된다고 할 수 있는 공(空 ; Leere)은 무(無)가 아니라 그 때 그 때의 현실적인 체험 자체 속에서 지향적으로 예시되어지고 자아로부터 실제화될 수 있다는 성격을 지닌 내용적인 가능성일 일컬는다. 즉, 지각의 흐름에 의해 충족될 공이며 규정 가능한 비규정적인 것이다.³⁶⁾ 그리고 자아로부터 실제화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이 내용적인 가능성은 주제화되어 소여된 사물을, 본래적으로 자기소여된 것인 감각자료 혹은 감각자료에 파악작용이 가해져 의미규정된 실재(Reales)에 있어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이 사물에 대해 계속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각의 무한한 확장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즉,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각으로 하여금 내적지평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내적지평은 본질적으로 모든 지각에 속해 있고 그 지각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모든 지각적 경험 자체의 귀납이다.³⁷⁾

이렇게 볼 때, 지각에서는 실제로 의식되는 전면(前面)에 나타나는 감각자료의 현출(이는 색, 모양 등의 감각노에마를 대상으로 삼을 때) 혹은 이러한 감각자료에 생화하는 파악작용이 가해져 의미규정된 그때 그때의 실재(이는 사물을 대상으로 삼을 때 노에마로서의 색, 모양 등)³⁸⁾와 가능적인 공으로서 함께 사념되는 지평이라는 두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지각에서의 현실태와 가능태(Aktualität und Potentialität), 기지성(既知性 ; Bekanntheit)과 미지성(未知性 ; Unbekanntheit) 혹은 선지성(先知性 ; Vorbekanntheit) 그리고 규정성(Bestimmtheit)과 비규정성(Unbestimmtheit)의 역할 및 그 관계야말로 지각에 대한 발생적 고찰에서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 것이다.³⁹⁾

우선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전자의 항들이 후자의 항들에 대해 지시(Indizieren), 예시(Vorweisen oder Antizipieren) 혹은 함축(Implizieren)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 이러한 지시, 예시 및 함축의 관계가 1 : 1 대응의 개별적인 지시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시체계, 즉 상응하는 다양한 가능성 현출체계를 지시하는 관계이다. 각 지각단계에서의 이러한 지시체계는 두 방향의 지시체계를 이룬다. 노에마적으로는 새로운 공지평 내지는 새로운 규정 가능한 비규정성의 체계를 이루며, 노에시스적으로는 노에마적인 체계에 상응하는 일종의 시선의 체계인 연속적인 경향의 체계를 이루는 것이다.⁴⁰⁾ 한편,

35) PS. 6.

36) CM. 81f. PS. 6.

37) EU. 27f.

38) Husserl은 이러한 구분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다소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

39)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은 CM. §§ 19-20. EU. § 8. PS. §§ .1 ~ 4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각각 다른 제기들에서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은 다르지만 다들, 현출과 지평에 병렬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0) PS. 6.

이러한 지시 관계는 다른 아닌 신체의 운동감각에 의해 동기지워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⁴¹⁾ 즉, 이러한 지시체계는 신체의 운동감각적 가능성의 체계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각대상에 대한 인지(認知; Kenntnisnahme)에 있어서 전자의 항들은 핵(Kern)을 이루고 후자의 항들은 주변이라 일컬을 수 있는 지평을 이룬다.⁴²⁾ 이러한 핵과 지평의 지시 혹은 예시의 관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종의 지향성의 양식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 지향성은 소여성의 핵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예전하면서 대상에 대해 무엇을 기대함으로써 지각의 내적지평을 이루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대상과 함께 있는 다른 대상들에로의 지향으로서 끝없는 외적지평을 이루기도 한다.⁴³⁾

지각의 지평에는 내적지평(*Innenhorizont*)과 외적지평(*Außenhorizont*)이 구분되어 속해 있는 것이다. 내적지평이 지각대상 내에서 가능한 영역임에 반하여 외적지평은 다른 대상들끼리의 연속적인 결부를 통하여 성립되는 영역이다. 내적지평은 지각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일면들, 혹은 계기들로서 지각대상에 속해 있고, 외적지평은 지각대상이 의식연관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된다.

이 때, 외적지평은 언제라도 주제화되면 전면에 나타날 수 있는 “아직 지각적 직관적 영역”으로서 직접적으로 지각주체(일정한 지각대상)에 접속되어 있는 지평과, 엄격한 의미에서 “비직관적인 공지평(空地平)” 혹은 “완전히 비어 있는 공지평”으로 구분된다.⁴⁴⁾ 또한 의식연관적으로 볼 때, 지각되는 것은 지각작용이 그치는 곳에서 함께 그치는 것이 아니며 실제적으로 혹은 가능적으로 알려졌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대상들의 영역인 공간은 끝없이 펼쳐진다.⁴⁴⁾ 그리고 이러한 영역이 끝없이 계속됨으로써 공지평으로서의 외적지평은 “본래적으로 전체 세계(世界)를 포함하되 가능적 지각의 무한한 한 지평으로서” 포함된다.⁴⁵⁾

본 § 4.에서 이제까지 고찰한 지평구조는 “지시체계”라는 용어에서 암시되는 발생적 측면이 있긴 하나 대체로 개별적인 지각단계를 다소 정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지평구조는 그 성격상 정적인 방식으로는 충분하게 분석될 수 없다.

이제 지각흐름에서의 지향과 충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지평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발생적 고찰을 하겠다.

현재의 지각단계는 앞선 지각단계의 지향적 공지시체계인 지평의 일부가 현재의 감각자료 및 감각자료에 가해진 파악에 의해 의미규정된 실재의 현출로써 충족되고, 충족되지 아니하

41) Krisis. §. 47.

42) EU. 27. 이는 정적현상학에서 (Ideen I. 316) Noema의 구조를 핵(Kern)과 성격(Charakter)으로 나누어 본 것과 대조가 된다.

43) EU. 28.

44) EPh. II. 147. PS. 8.

45) EPh. II. 148.

지평의 일부를 자신의 공지시로서 그대로 넘겨받음과 동시에 충족된 새로운 자기소여에 의해 성립되는 새로운 공지시를 지니게 된다. 이는 모든 미래의 지각단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지각단계는 항상 새롭게 성립되는 충족과 공의 결합으로서 현출되는 것이다.⁴⁰⁾ 이 때, 지각대상의 의미는 순간 순간의 통각(즉, 파악)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겹침(Deckung)의 종합정립태를 이루는 순간적인 현출들의 계속적인 연속 내에서 존립한다. 따라서 이렇게 개개의 통각을 통하여 획득되는, 현재의 지각단계에서의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서의 의미는 한편 지각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체 내에 지니고 있는 셈이 된다. 즉, 개개의 통각들은 통각된 전체내용을 넘어서 있으며 아직 주제화되지 않았을 뿐 지각의 흐름에 따라 주제적으로 나타날 가능적인 의미요소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가능적인 의미요소가 의미충족을 해가는 대상의 지평 내에 예시적으로 존립함은 물론이다.

한편, 이 때 개별적인 통각들은 그 때 그 때 의미규정된 실재를 의식하게 되는데,⁴¹⁾ 이러한 실재들의 흐름 하에서 대상은 지속적인 동일성을 견지하면서 그 성격상 실제로 나타나는 의미규정과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가능적 의미규정에 대한 기체(Substrat)로서 소위 “지속적인 X”가 된다.⁴²⁾

이러한 지속적인 X로서의 대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항상 세계지평 혹은 단적으로 표현하여 세계라는 외적지평 내에서 표출될 수 밖에 없으며, 이 때 세계는 대상에 대한 지평으로서 선소여되어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이 세계는 대상에 대한 규정의 타당성의 지평(Geltungshorizont)을 이룬다. 그런데 이 선소여된 세계는 가능적 경험의 잠재성에 대한 의식 내에 놓인다.⁴³⁾

지속적인 X로서의 대상은 지각흐름 내의 의미규정을 구성하는 통각의 흐름에 의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을 받게 된다. (*Näherbestimmung haben*) 그러나, 이 같은 더욱 상세한 규정을 받는 대상은 아무리 많은 더욱 상세한 규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더욱 상세한 규정에만 그칠 뿐 절대적으로 완전한 규정을 이루거나 대상자체 혹은 소위 절대적인 개별적 본질(*absolutes individuelles Wesen*)을 획득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것의 획득은 오로지 지각의 이념에 속할 뿐이다.⁴⁴⁾

따라서, 대상에 대한 완전히 충전적인 명증성이 불가능하게 되고 자기소여 및 대상자체의 있음에 대한 명증한 의식은 무한히 가능한 지각의 흐름에서 항상 필연적으로 상대적이며 불완전하고 불충전적인 명증성을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⁴⁵⁾ 그러므로, 지각은 절대적인

46) PS. §2.

47) EU 29.

48) PS. 5.

49) EU. 30f

50) PS. 21.

51) A. Aguirre. a, a, O. 144.

충전적 명증성이라는 이념을 향한 보편적인 목적론적인 구조를 지니는 것이다.⁵²⁾

§ 5. 지각대상의 발생적 역사

이러한 지각의 보편적인 목적론적 구조를 역행적으로 되돌아 보면, 각각의 지각단계에서 수행되어진 통각에 의한 의미규정들은 이미 획득된 내용(Erworben)으로서 혹은 이미 알려진 내용(Bekanntliche)으로서 현재의 지각단계에 축적됨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더욱 상세한 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파지(Retention)라는 독특한 의식작용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다. 지각과정에서 새로운 측면이 보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보인 것은 점차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에서 완전히 상실된다 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목표로 삼아 수행되는 지각작용으로서의 인식작용은 전체과정을 통하여 그 대상을 규정된 내용에 따라 균원적인 인식적 획득으로 만들어 그 대상에 대한 통일된 인식을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³⁾ 이처럼 매순간 수행되는 대상에 대한 의미규정을 “보유하고 있음”(Im-Griff-behalten, Im-Griff-bleiben)이라는 성격을 통하여 인식에 남아도는 획득물로 만드는 기능을 파지라고 한다.

이리하여 남아도는 인식의 획득물은 미지의 대상들의 지평을 지난 나의 그 때 그 때의 기지의 환경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⁵⁴⁾ 따라서, 대상들이 드러나는 장소인 선소여된 세계는 이미 알려진 내용의 남아도는 획득물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즉, 지각의 주체로서의 나는 “나에 대해 존립하는” 환경세계를 지니되 기지의 획득물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환경세계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환경세계 내에서 나에 대해 존재하되, 이미 남아도는 분절 가운데서 어느 정도 나에게 알려진 혹은 알려질 것으로 예기되는 대상을 지각의 대상으로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각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은 대상이 알려진 대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⁵⁵⁾ 한편으로 선소여된 알려진 대상의 내용으로부터 알려져 있지 않은 대상의 내용으로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 이중적인 변화과정, 즉 알려진 것에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또 다시 알려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알려진 것으로의 변화과정이야말로 지각의 고유한 발생적 특성이다. 그러나, 발생적인 역사가 성립되는 방향은 알려진 것에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의 방향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선여된 세계로부터 지각대상에 미리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성격은 어떠한가?

52) FTL. 143.

53) PS. 9.

54) CM. 102.

55) PS. 9.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더욱 상세한 규정은, 통각에 의해 이미 “생생한 앞”으로 드러나 있는 의미규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지각의 내용이 의미규정된 실재 자체에 부가될 수 있으며 부가되어야만 하는가를 미리 표상하는 예기(Antizipation)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⁵⁶⁾ 그런데, 이러한 예기적인 직관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규정적인 일반성(unbestimmte Allgemeinheit)이라는 본질적인 고유성을 지닌 형식적인 전형(典型; Typus, Typik)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예기는 비규정적인 일반성의 명백한 “범위”(Umfang)인 가능성의 무대(Spielraum der Möglichkeit)를 구성하는 전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개개의 통각을 통하여 의미규정된 모든 실재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게 되는 전형은 실재에 대해 선지성(先知性; Vorbekanntheit)이라는 일반적인 “선천적 내용”(Apriori)을 부가한다.⁵⁷⁾

이러한 선천적인 전형을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성립되는 전체전형은 한편으로 전형적인 일반성의 전체지평을 이룬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실재의 개별전형(Besondertypik)은 전체전형의 무한성 내에 있는 총체적 전형(Totalitätstypik)으로부터 연출되는 것이다.⁵⁸⁾

이렇게 볼 때, 지각의 대상은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선천적 전형들의 일반성을 통로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이미 획득된 침전된 내용들을 파지적으로 혹은 기억적으로 수반하면서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미꽃을 지각할 때, 순간 순간 의미규정되어 현출하는 장미꽃의 색깔은 지각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지만 “색”이라고 하는 전형을 벗어날 수는 없으며 현재의 지각에 현출하는 장미꽃의 색깔은 그 장미꽃에 대하여 이제까지 지각한 침전된 인식내용으로서의 색깔을 파지적으로 수반함으로써 겹침에 의한 종합정립태로서 나타난다. 이는 청각적이거나 촉각적인 지각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전형은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넓은 일반성을 띠게 되고, 침전된 인식내용의 복합성이 심해진다. 예를 들면, 장미꽃 전체를 대상으로 지각할 때, 이제 전형은 공간적 사물이라는 더 높은 단계의 일반성을 지닌 것으로 되고 침전된 인식내용은 색 뿐만 아니라 모양이나 부드러움 등의 복합적인 내용을 띤 종합정립태로서 선소여되는 것이다.

이제, 지각의 대상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미지적인 것일 수는 없으며 지각대상에 새롭게 부가될 더욱 상세한 규정 역시도 결코 완전히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일 수는 없다.

즉, 모든 지각에서 현출되는 감각자료와 그 감각자료가 통각에 의해 의미규정된 실재 혹은 의미규정의 기체로서의 대상은 이미 선소여된 지향성의 역사(Geschichte) 혹은 전통(Tradition)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⁵⁹⁾

56) EU. 31.

57) EU. 31f. EPh. I. 275.

58) EU. 32f.

59) A. Aguirre, a, a, O. 156.

§ 6. 지각에서의 자아의 역사성

이제까지 우리는 감각자료에 근원적인 귀환을 하여 거기에서부터 지각대상의 역사성을 도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지각대상의 역사성은 의식연관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각이라는 의식작용의 독특한 성격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지각대상의 역사성이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에 의존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제, 이러한 지각의 역사성을, 지각하는 자아의 역사성을 고찰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의 문제는 그야말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함축하는 것이기에 조심스러운 분석을 요구한다.

자아는 자기성찰 (*Selbstbesinnung*) 혹은 반성 (*Reflexion*)을 고유한 기능으로 한다.⁶⁰⁾ 이러한 자아의 반성이라는 고유한 기능에서 비롯되는 자아문제에 대한 Husserl의 고찰은 그야말로 철저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대표적으로 EPh I의 § 40. 강의를 살펴 보자.

우선 내가 단순히 집을 지각할 때에는 실제로 집을 지각하고 있는 자아만이 깨어있는 자아 (*waches Ich*)로서 존립한다. 그런데, “나는 집을 지각한다”라고 반성을 하게 되면 “나는 집을 지각한다.”는 것을 반성하는 ⁶¹⁾ 자아가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소위 자아분열 (*Ichspaltung*)이 일어나고 두 층의 자아가 생겨난다. 이 때, 반성하는 자아가 집을 지각하는 자아를 수반하는 것은 소위 “파지”라는 “아직 의식함”이라는 되잡음 (*Zurückgreifen*)에 의해 가능하다. 그리하여 고찰하는 자아로서의 나는 반성하는 현재 속에 이중적인 자아 및 이중적인 작용의 공존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이중적인 자아를 현재 속에서 지니게 되는 자아가 또 하나 등장한다는 사실이 엄연히 존립하게 된다. 즉, 무한한 자아의 분열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자아분열에 의하여 성립되는 여러 층들의 자아들은 위에서 말한 파지에 의해, 흘러가는 현재 속에 공속된다 (*mitgehört*). 이는 숨어있던 자아들이 (*latente Ich*) 연속적인 반성에 의해 드러난 자아들로 (*patente Ich*) 등장하는 것인데, 이 때 각각의 자아들은 그 작용에 있어서 양상을 달리 할 뿐 실상은 동일한 자아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자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시에 수많은 자아들의 작용들이 주제적으로 가능해야 할 터인 즉, 실상 주제화되는 사태는 한 가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는 실제로 집에 대한 단적인 지각을 주제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나는 집을 지각한다”는 의식작용을 주제적으로 지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60) EPh. I. 87. Krsis. 486.

61) 이 때의 반성은 또 다른 하나의 지각으로서 소위 내적지각을 이룬다.

단지 후자의 경우에 반성적으로 볼 때 자아가 이중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 후자의 경우에 주제화되는 대상은 “나는 집을 지각한다”는 통일된 하나의 사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반성에 의한 자아분열에 대한 고찰에서, 우리는 Husserl이 행한 정적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자아와 발생적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자아의 구분을 얻을 수가 있다.

정적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소위 순수자아 (*reines Ich*)라고 하는 자아는 위의 고찰에서 가능적으로 가장 깊은 반성의 자아로서 현상학적 환원에서 결코 배제될 수 없는 자아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자아는 아무런 기술할 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본질상 완전히 비어 있는 그야말로 순수자아이며 단지 모든 작용의 동일성 극에 불과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⁶²⁾

이와는 달리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취하는 자아는 위의 고찰에서 소위 흐르는 통일한 현재 속에 공존하는 다중화 (多重化) 된 자아들의 통일된 동일한 자아라 할 수 있다. 이 통일된 동일한 자아는 바로 흐르는 통일한 현재 속에서 자신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가는 자아이다. 이같은 연속적인 자기구성이 가능한 것은, 흐르는 통일한 현재 속의 통일된 동일한 자아가 실제적으로 지각하는 등의 체험하는 자아로서 어떠한 류의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들과 실제로 관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체험들 혹은 의식내용들 (*Cogitationes*)을 총체적으로 독특한 방식에 의해 포괄하는 소위 제이의 극화 (*zweite Polarisierung*)를 수행함으로써 통일된 의식류의 연속적인 자아극이 되기 때문이다.⁶³⁾ 그런데, 이 때의 자아극으로서의 자아는 그저 공허한 동일극으로서 의식류와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그러한 의식류를 자기구성의 내용으로서 짊어지고 가는 완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지닌 자아로서 존립하는 것이다.

이는 선형적 발생 (*transzendentale Genesis*)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선형적 발생의 원칙은, 한번 수행된 의식작용에 의해 성립된 의식의 내용은 그것이 나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남아 있는 한 내가 언제라도 그것에게로 되돌아 갈 수 있고 항상 또 다시 나에게 습관적으로 소유된 것으로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직접적으로는 파지에 의한 필연적인 접착 (*Anschluß*)에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체험현재에 있어서의 재생된 내용 (*Reproduktion*)이나 기대적 지향들의 출현을 가능케 하여 통일된 의식류를 구성하는 연상의 원칙에 입각 한다.⁶⁴⁾

이러한 선형적 발생의 원칙들에 의해 가능한 완전히 구체적인 자아는 모나드 (*Mönade*)로서 영속적인 나에 대해 존재하는 환경세계 (*für-mich-seiende Umwelt*)를 지

62) *Ideen I.* 195.

63) *CM.* 100.

64) *CM.* 100, *PS.* 336. *vgl.* *PS.* 제 4절.

니며 또한 그 안에서 나에 대해 알려진 또는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서 예견될 뿐이기도 한 대상들을 아울러 지니는 것이다.

§ 4. 에서 우리가 고찰한 바에 의하면 대상은, 우선 감각자료에 생화하는 작용인 파악이 수행됨으로써 규정된 노에마적 실재를 이루고 이러한 실재의 현실적인 규정과 세계를 총체적인 외적지평으로 하는 실재의 지평을 바탕으로 공한 방식으로 함께 알려지는 가능한 규정들에 종합정립적인 능동성이 가해짐으로써 다양한 속성들 안에서 종합정립적으로 규정되는 동일한 X로서 구성되는 것이었다.⁶⁵⁾ 그런데 이러한 대상에 대한 존재정립과 존재해명의 나의 능동성은 나의 자아의 습성 (Habitualität)을 설립한다 (stiftet). 한편, 대상은 이러한 나의 자아의 습성에 의하여 자신의 규정들을 지닌 대상으로서 머물면서 나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다.⁶⁶⁾

이렇게 볼 때, 모나드로서의 구체적인 자아는 습성의 기체 (Substrat der Habitualität)로서의 자아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됨을 알 수가 있다.⁶⁷⁾

흐르는 통일된 의식류를 포함하는 모나드로서의 구체적인 자아는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모든 의식생활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자아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의식생활을 통한 다양한 체험들은 공존과 연속이라는, 내적시간의식의 근원적 종합에 의하여 성립된 보편적 형식에⁶⁸⁾ 따라 이 모나드로서의 구체적인 자아 내에서 함께 공재 (Kompossibilität)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재는 우연한 공재가 아니라 서로 동기부여 (Motivation)의 관계에 있다. 한편 이러한 동기부여는 보편적 발생의 통일성을 내세운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동기부여의 체계는 자아의 보편적인 발생을 내세움으로써 자아가 역사 (Geschichte)의 통일성 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를 구성하게끔 하는 것이다.⁶⁹⁾

물론, 이 때의 역사는 체험류의 “침전된 역사” (niedergeschlagene Geschichte)이고, 지각에 있어서는 § 5. 에서 도출한 지각대상의 침전된 역사를 지칭하기만 하니, 이제 자아가 체험류를 포함하는 혹은 체험류의 역사의 통일성 내에서 자신을 구성하는 모나드로서의 구체적인 자아이므로 자아 역시도 그러한 역사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65) *Ideen II*, § 9에 따르면, 대상의 구성에 있어서 전자는 감성적 종합에 의해 가능한 것이며 후자는 법주적 종합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66) CM. 102.

67) Husserl은 CM. 102에서 이 두 자아를 구분하고 있다.

68) PS. 128, EU. 75f.

69) CM. 109.

제 2부 지각에 대한 발생적 고찰

지각에는 종적인 계기에서의 문제와 횡적인 계기에서의 문제 있다. 전자의 문제는 지각에 역사성이 있다는 문제로서 고찰될 수가 있으며, 후자의 문제는 세계라는 총체적인 외적 지평으로 완결되는 외적지평의 문제로서 고찰될 수가 있다.¹⁾

전자의 종적인 계기에서 지각의 제 단계들을 주시해 보면, 개별적인 어느 정도의 완결된 지각단위들이 지각의 발생적인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혀 생소한 듯한 지각적 상황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지각상황이라 할지라도 곧 반복적인 지각에 의해 정복된다. 이 때, 지각의 발생적인 지각단위는 지각장 내에서 대상이 드러나 자아를 촉발하는 것에서부터 관찰적 지각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연관적 파악(*Beziehungserfassung*)에 이르는 과정을 일컫는다.

후자의 횡적인 계기에서의 지각에 대한 고찰은 외적지평이 지각대상이 드러나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촉발의 전제가 되는 대상의 드러남(*Abgehobenheit*)²⁾의 문제와 관찰적 지각의 최종단계인 연관적 파악의 문제에 관계된다.

따라서, 지각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가능성이 열리는 지각에 대한 발생적 고찰은 촉발에서부터 연관적 파악에 이르는 개별적인 발생적 지각단위를 구조적으로 고찰하는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의 발생적 단위는 주제화된 한 지각대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구조는 일반성을 띠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지각의 발생적 단위를 구조적으로 고찰함으로써 Husserl의 발생적 지각론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7. 촉발(Affektion)의 현상

a) 연상(Assoziation)에 대한 기본적 고찰

연상은 의식일반에 지속적으로 속하는 내재적 발생의 형식이며 규칙이다.³⁾ 한편, 연상은 순수자아의 구성에 있어서의 지향적인 본질적 규칙이다.⁴⁾ 그런가 하면, 연상은 “무엇에 대

1) R. Sokolowski는 그의 저서, “The formation of Husserl’s concept of constitution”, The Hague, 1964, p.162에서 정적 현상학은 체험류의 횡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발생적 현상학은 체험류의 종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각의 두 계기의 구분은 이와 다른 류의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두 계기의 문제는 모두 다 발생적 현상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 PS. 149. 이 때, 드러남(*Abgehobenheit*)은 감각자료의 현출(*Erscheinung*)과 유사하지만, 발생적 고찰에서는 감각자료의 현출은 이 대상의 드러남이 전제가 되어 촉발의 현상 및 자아 전향과 아울러 자아의 주의(*Aufmerksamkeit*) 후에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로 구분된다.

3) PS. 117.

4) CM. 114.

해 상기되는 바 무엇”의 그리고 “다른 것에로 지시되는 무엇”이라는 순수내재적인 연관이다.⁵⁾ 이 때, 연상에 있어서 지향성이나 순수내재성이 강조되는 것은 Husserl 특유의 고찰로서 현상학적 환원에 의한 결과이다. 사실, 실증적인 심리학자들은 연상을 “심리내적인 인력과 같은 두 엇” 즉, 물리학적인 인력의 법칙과 유사한 심리적 자료들의 인력의 법칙으로 보는가 하면,⁶⁾ 객관적이며 심리물리학적인 인과성의 형식이나, 인간적 혹은 동물적 심리활동에 있어서 재생(Reproduktion)이나 재상기(Wiedereininnerung)의 출현을 인과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으로 본다.⁷⁾ 즉, 그들은 연상을 객관적인 귀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심리물리학적인 자연법칙에 대한 방법으로 본 것이다.⁸⁾

그러나, Husserl은 이러한 실증적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연상에 대한 진정한 현상학적 개념의 자연주의적 왜곡이라 하여 일축한다.⁹⁾ 왜냐하면, 현상학적 환원에 의하면, (이에 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겠지만) 모든 객관적인 실제성이나 객관적인 인과성이 활 호쳐지고 남아도는 것은 사물현상, 인간현상 등 지향성 안에서 우리에 대해 현존하는 소위 현상들만이 존립하게 되며, 따라서 의식연관성을 배제한 객관적인 심리물리학적 현상이란 존립할 수 없고 그러한 객관적인 심리물리학적 자료들간의 객관적인 법칙이란 것도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상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가?

앞에서 우리는 모나드로서의 구체적인 자아가 훌러가는 동일한 체험류를 짊어지고 간다는 사실을 고찰했다. 자아의 모든 체험활동은 이 훌러가는 동일한 체험류, 단적으로 말하면 훌러가는 의식현재 안에 역사를 떠면서 응축되어 간다. 따라서, 우리는 이 훌러가는 현재 속에서 과거에 대한 재상기나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의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여러 방식들의 대상들이 어떻게 무엇을 계기로 하여 흐르는 현재 속에 함께 발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현재의 대상은 지각적으로 그 때 그 때 구신적으로 구성된 실제성만을 지닌다. 따라서, 모든 재상기나 기대는 이 구신적인 실제성을 근거로 하여 성립될 수 밖에 없다.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현재의 대상이 과거의 대상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대상이 미래의 대상을 예기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각하여 원본적으로 구성하는 의식이 무엇인가를 일깨우는 의식(weckendes Bewußtsein)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일깨워진 의식(gewecktes Bewußtsein) 역시도 또 다시 일깨우는 의식의 작용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하겠다. 바로 이러한 일깨우는 의식과 일깨워지는 의식의 내재적인 연관을 연상이라 부르는 것이다. 또한

5) EU. 78.

6) B.H. Son. "Science and Person.". VAN GORCUM & COMP. B. V. ASSEN. 1972. p.123.

7) PS. 117.

8) EU. 78.

9) CM. 114.

이러한 의식의 상호연관성은 상기적 지향 및 예기적 지향이라는 특수한 지향성들을 성립시킨다.¹⁰⁾

여기에서, 우리는 자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흐르는 통일된 체험류를 자신의 구성내용으로 하여 자기 자신을 구성할 때, 연상이 그 지향적인 본질적 규칙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연상론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발생론이 포함됨을 알 수가 있다. 즉, 재생의 발생론과 기대의 발생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Husserl은 전자의 것을 최초의 원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연상론에 속하며 후자의 것을 높은 단계의 것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¹¹⁾

한편, 지적할 것은 연상의 방식에는 직접적 연상과 간접적 연상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주 간단하게 직관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구조를 도출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a가 b를 일깨우고 b가 c를 또 다시 일깨운다고 할 때, 이 두 일깨움은 직접적인 연상이 된다. 그리고 a가 c를 상기시킨다고 할 때에는 b라고 하는 매개지 (Zwischenglied)를 뛰어 넘음으로써 간접적 연상이 성립된다. 이러한 연상의 구분은 지각장의 선소여적 현상인 대조 (Kontrast)와 용해 (Verschmelzung)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유사성 (Ähnlichkeit)과 상이성 (Nichtähnlichkeit) 혹은 동질성 (Homogenität)과 이질성 (Heterogenität)의 연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b) 촉발의 전제로서의 드러남의 조건 : 동질성과 이질성

지각의 대상은 세계를 전체로 하는 외적지평에서 출현한다. 또한 이러한 외적지평은 지각에 있어서 선소여적인 지각장을 구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소여된 지각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Husserl이 대상의 드러남을 대상이 자아에 행사하는 촉발의 전제로 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촉발되지 않고서는 그 대상이 주제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상이 드러난다는 사실과 지각장이 구성된다는 사실은 거의 밀접하게 연관되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으나, 지각장 내의 임의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촉발을 행사하기 직전에 촉발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단계가 있다는 사실로써 가까스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상의 드러남이 어떻게 성립되며 드러난 대상이 어떻게 촉발의 경향을 띠게 되며 급기야 자아를 촉발하는가를 살펴보자.

대상들의 드러남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적으로 규정된 결합은 바로 동질성과 이질성의 결합이다.¹²⁾ 이 때, 그 자체에 있어서 분절된 대상은 바로 동질성의 결합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¹³⁾ 그렇다면, 이러한 동질성과 이질성은 지각장 (좁게는 감각장)에 있어서 어

10) PS. 118.

11) PS. 119.

12) PS. 129.

13) EU. 76.

떻게 생겨 나는가? 그것은 소위 동질성의 종합이라는 연상에 의한 것이다.¹⁴⁾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질성이 곧 동일성(Gleichheit)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질성의 종합에는 유사성의 종합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로 이 유사성의 종합이 대조와 용해의 현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a)에서의 직접적인 연상은 모두 다 이 유사성의 연상이다.¹⁵⁾ 한편, 이 유사성의 연상은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에 의해 일깨워지고 비슷하지 않은 것에 대립되어 나타난다는 연상적인 원칙에 근거한다.¹⁶⁾ 바로 이러한 유사성의 연상을 거쳐 동질성이 확보되며 동시에 이질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비슷한 것끼리는 일종의 덮침(Überschiebung)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용해가 선재해 있다. 그리고 이 용해의 정도에 따라 동질성과 이질성 및 그에 따른 대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성의 용해는 순전하고 완전한 용해는 아니다. 이러한 순전하고 완전한 용해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동일성(Gleichheit)이 성립하게 된다.¹⁷⁾

한편, 이 용해는 계기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고 명칭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하얀 면에 붉은 얼룩이 있다고 하자. 이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비되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색이라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계기에 서는 서로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해는 양자가 서로에게로 흘러들어간 방식이 아닌 이격용해(離隔溶解: Fernverschmelzung)라는 방식을 취한다.¹⁸⁾ 이러한 이격용해는 한편으로 대조를 가능케 한다고 할 수가 있다. 결국, 모든 유사성의 용해는 어느 정도 이격용해인 것이며, 이러한 이격용해를 완전히 벗어나 순전한 용해를 이루는 것은 바로 동일성을 이루는 용해 뿐인 것이다.

이러한 연상에 의한 유사성 혹은 동일성의 용해 혹은 결합이 대상의 드러남의 결합의 조건이 되며, 이 드러남의 결합이 한편으로 대조를 수반함으로써 자아에 대해 일정한 촉발력 혹은 촉발하는 경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촉발은 자아의 전향으로 이완되면서 자아전향으로부터 대상자체를 자기부여하며 항상 계속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직관과 인지(Kenntnisnahme) 및 대상에 대한 더욱 세밀한 관찰에로의 활동으로 지속되는 것이다.¹⁹⁾ 왜냐하면, 촉발이 중단된다는 것은 대상 자체가 사라져 지각의 배경체험(Hintergrund erlebnis)적 영역으로 숨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c) 촉발의 강도(Starke)

실제적인 촉발은 촉발자로서의 대상의 상태와 피촉발자로서의 자아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촉발력 내지 촉발의 강도는 대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 그리고 자아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가?

14) PS. 199. EU. 77.

15) EU. 78.

16) EU. 79.

17) EU. 77. PS. 129.

18) EU. 76.

19) PS. 148f.

우선, 주위의 지각장을 주제화하는 의식이 없이 일별해 보자, 지각장은 아무 구별이 없는 혼돈이나 마치 침침한 밤처럼 획일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대상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구별되어 있다. 이러한 구별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대조이며, 이는 앞에서 고찰한 바대로 유사성의 연상에 의한 것이다. 이는 모든 감각 방식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다. 이 대조는 질적인 불연속(qualitative Diskontinuität)이라고 일컫는 바²⁰⁾, 이 대조의 정도에 따라 촉발력 뿐만 아니라 촉발의 경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의 정도는 자아에 대한 강압성(Aufdränglichkeit)을 행사하는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강압성의 정도에 따라 대상이 자아이격적(自我離隔的 : Ichferne)하거나 자아근접적(自我近接的 : Ichnahe)이기도 한 것이다.²¹⁾

예를 들어, 라디오를 켜 놓고서 듣고 있을 때, 집 바깥의 아이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폭음이 크게 울렸다면 그 소리는 들릴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처음의 아이들의 소리는 그 대조에 의한 강압성에 있어서 라디오의 소리에 밀려 들리지 않으나 폭음 소리는 오히려 그 대조에 의한 강압성에 있어서 라디오의 소리를 능가하여 순간적으로 라디오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아이들의 소리가 전혀 촉발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라디오를 꺼버리고 바깥에 귀를 귀울일 경우에는 촉발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인 촉발(wirkliche Affektion)과 촉발에의 경향(Tendenz zur Affektion)을 구별할 수가 있다. 촉발에의 경향은 아직 실제적인 촉발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상황”(günstige Umstände)이 닥치면 (예를 들면, 위에서 라디오를 꺼고 바깥에 귀를 기울일 경우) 언제라도 실제적인 촉발을 일으킬 수 있다.²²⁾

한편, 촉발의 강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피촉발자로서의 자아의 편에서 성립되는 더 좋아하는 감각적인 느낌이다. 즉, 본능적으로 충동적인 따라서 수동적인 더 좋아하는 호감 혹은 욕구(Wollust)가 촉발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²³⁾

예를 들면, 푸른 색깔의 꽃들 가운데 분홍빛 꽃 한송이와 연두빛 꽃 한 송이가 같이 피어 있을 때, 대상의 측면에만 유의한다면 당연히 분홍빛 꽃이 가장 촉발력이 강할 것이다. 그러나, 지각하는 자아가 평소에 연두빛을 특별히 좋아한다면, 연두빛 꽃이 분홍빛 꽃보다 그 촉발력이 덜할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촉발력은 대조의 상대성과 자아의 우대하는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20) EU. 80.

21) EU. 80f.

22) PS. 149.

23) PS. 150.

§ 8. 수용 (Rezeptivität)의 과정

a) 촉발과 자아전향 (Ichzuwendung)

동질성과 이질성을 조건으로 하는 지각장에서 대상이 시원적으로 드러날 때, 대상은 그 대조의 정도에 따라 촉발력 혹은 촉발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대상이 실제적인 촉발의 결과 혹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아의 구체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이 때, 대상의 시원적인 드러남의 형태는 한 측면에 그치는 감각적인 자료이다. 이러한 감각자료는 자신이 지닌 강도 (Intensität)에 따라 다양한 촉발가능한 감각자료들 가운데서 드러나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한다.²⁴⁾ 지각장 내에 감각자료로서의 대상들 가운데서 강도, 즉 촉발력이 강한 감각자료가 드러나 자아에 실제적인 촉발을 일으킬 때 이 촉발의 결과 혹은 효과로서 소위 그 촉발하는 감각자료로서의 대상에 대해 자아전향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하여 비로서 자아의 수용성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의 전향은, 지각장 내의 여러 감각총의 감각자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 감각총의 감각자료를 단적으로 파악하여 주제화시키고자 하는 작용을 목표로 하는 자아의 활동의 최초의 단계로서 비록 대상의 촉발에 의한 수동적인 자아의 수용성이긴 하지만, 자아의 능동성이 예외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성의 최하 단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²⁵⁾ 따라서, 지각장의 감각자료들로서의 다양한 대상들에 일정한 자아전향이 없이 그저 마주하고 있는 자아는 그야말로 수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 것도 지각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이 그저 명하니 눈을 뜨고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책을 읽고 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대상들에 대한 자아의 경우에 있어서의 자아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아전향 상태의 자아와 자아전향 이전의 자아는 구별되며, 그에 따른 체험도 구분되는 것이다. 자아전향 이전의 체험을 전체적인 지향적 배경체험 (Hintergrund-erlebnis)이라 하며, 자아전향이 이루어진 이후의 체험을 전면체험 (Vordergrunderlebnis)이라 한다. 이 때, 배경체험은 자아전향에 의해 전면체험으로 변화한다. 그리하여 대상은 자아배후적 상태 (Status des Ichhintergrundes)에서 대자아적 (對自我的: Ichgegenüber) 인 상태로 되어 자아에게 당겨오게 되며, 상대적으로 자아는 대상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²⁶⁾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경향을 구별할 수가 있다.²⁶⁾

1) *cogito* 이전의 경향: 이는 대상(감각적 자료)이 동질성과 이질성을 조건으로 하는 상대적인 대조의 정도에 따라 지나게 되는 배경체험에서의 촉발하는 경향이다.

2) *cogito* 이후의 경향: 이는 자아전향에 의하여 자아가 대상으로, 대상이 자아으로 향

24) EU. 80.

25) EU. 83.

26) EU. 81f.

하게 되는 전면체험에서의 경향이다. 한편으로, 이 자아전향의 수행은 자아의 각성 (Wachsein)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²⁷⁾ 바로 지각작용의 시초이며²⁸⁾ 이러한 자아전향은 파악 (Erfassung)과 함께 끝난다.²⁹⁾

b) 자아전향으로서의 주의 (Aufmerksamkeit)

이같이 자아전향에 의해 대상에 대한 자아의 경향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지각과정의 경과에 따라 계속 강해져야만 하는 고유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각이란 그저 자아가 대상에게로 몸을 돌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가 완성되기까지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한 대상에 대한 경향을 확장시키고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본질적인 작용이 요구된다. 그것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의는, 자아의 특수한 활동의 본질적 구조에 속한 것으로서 자아가 지향적 대상 즉, 소여방식의 변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현출하는 통일성을 지닌 대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는 실현하면서 향하는 작용 (ein vollziend-Tendieren)이다. 자아전향과 함께 개입하는 주의의 이러한 실현 (Vollzug)은 대상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아의 주시 (Gerichtetsein)의 시초이다. 또한 이러한 실현으로서의 주시의 시초는 확장되면서 종합적으로 통일되는 수행과정을 예시한다. 그리고 이 종합적으로 통일되는 수행과정을 통하여, 주의에서 성립된, 통일성을 얻고자 하는 경향은 단계적으로 충족된다.³⁰⁾

이렇게 볼 때, 자아전향에서 이루어진 자아경향은 주의를 통하여 지향적 관심으로서의 자아경향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c) 지향적 관심으로서의 자아경향

자아전향과 함께 생겨나는 대상 자체에 있어서의 존재에 대한 의식, 즉 대상을 겨냥하는 (abzielend) 경향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다. 물론, 지각에서의 일차적인 의식은 소위 구신적인 현재 내에서의 일면적인 실제성을 파악하는 의식이긴 하다. 그러나, 지각은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의식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실제적으로 주어진 단적인 현재 내에서의 대상을 의식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지금의 현재가 다음의 현재일 수는 없다는 것이 시간규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자아가 대상을 향하여 겨냥한다는 것은 순간 단속적으로 끊어지는 사태와는 조화될 수 없으며, 여하한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변화 가운데서 동일한 무엇을 지닌다는 사태와 조화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겨냥이란 그

27) EU. 83.

28) EU. 86.

29) EU. 81.

30) EU. 85.

성격상 순간적인 것일 수 없으며 지속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이건 간에 지속적이라는 성격 자체에서, 겨냥은 지금의 것과 다음의 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을 요구한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것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향인 것이다. 이 때, 이 지향은 현재의 것을 바탕으로 하되 현재의 것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덤 (plus ultra)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³¹⁾ 그리하여 자아전향에서 생겨난 대상에 대한 겨냥 (Abzielung)이라는 최초의 양식은 재차 상이한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얻으려고 노력함 (Erzielung)이라는 양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경향은 “가능적 현출들”의 달힌 다양성 안으로 유입하게 된다.³²⁾ 이 때 “가능적 현출들”的 달힌 다양성의 한계가 § 4.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내적지평임은 물론이다. 또한 이러한 가능적 현출들이 자아의 신체에 속한 차발성을 근거로 한 운동감각에 의해 동기지워진다는 사실도 § 2.에서 고찰한 바다.

이리하여 지각은 그 시간규정적 성격상 지향적 의식 혹은 지평적 의식을 갖고서 계속 그 내용에 있어서 풍부해지는 특성을 갖는다. 이 때, 풍부해짐에 따라, 우리는 긍정적인 느낌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만족감은 그저 대상으로 전향해 있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으며 그 대상에 소위 주제적으로 몰두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 때, 대상에 대한 주제적인 몰두 (Dabeisein; Inter-esse)는 곧 자아전향에서의 좁은 의미의 관심³³⁾과는 다른 넓은 의미의 관심 (Interesse)이라 할 수 있는 지향적 관심으로서의 자아경향인 것이다.³⁴⁾

d) 감성적 종합 (ästhetische oder sinnliche Synthesis).

이러한 지향적 관심으로 변화된 자아의 경향은 가능적 현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하는가? 이러한 관계의 방식을 우리는 감성적 종합이라 일컫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애초에 촉발의 경향을 띠고 드러나는 대상은 감각자료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자료에 의한 촉발의 경향은 단적인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전술한 바다. 그리고 단적인 파악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감성적 종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각자료의 촉발력은 이 감성적 종합으로써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성적 종합이란 무엇인가?

감성적 종합의 기능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³⁵⁾ 1) 개별적인 감각영역 (Sinnessphäre)에서의 통일된 개별정립태 (Einzelthese)의 형성. 2) 서로 다른 감각영역에서 구성되는 대상성들을 하나로 가져가는 것. 3) “사물현출” (Dingerscheinung)의 계기들과 이에 상관적인 “지각상황들” (Wahrnehmungsumstände) 간의 관계지움 등의 세 가지이다.

31) EU. 87.

32) EU. 88.

33) EU. 87.

34) EU. 91f.

35) Ideen II. 19f.

감성적 종합에서 지향적 관심으로서의 경향은 자아가 외부대상으로부터 가지는 현출을 “그 동일한 대상으로부터의 현출들” 안으로 넘기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대상을 모든 측면에서 소여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새로운 현출의 변화들을 도모한다. 경향은 우리가 “그림들” (Bilder)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항상 새로운 현출방식의 산출에 관계함으로써 모든 외적지각의 대상을 일단 “그림”으로서 나타나게 하고 이러한 그림들이 서로에게로 넘어감으로써 겹쳐져 종합되어 통일태 즉, 개별정립태를 구성하게 한다.³⁶⁾ 이와 같이 감각적 통일태를 구성하는 것이 곧 제 1)의 감성적 종합이다.

그런데, 그림에서 그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이가능성 (*Übergangsmöglichkeit*)은 신체가 두루 움직임 (Durchlaufen)에 따라 동기지워지는 실제적인 가능성이이다.³⁷⁾ 즉, 그림들의 출현 (Sicheinstellen)은 소위 “나의 힘” (meine Macht)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신체의 움직임은 지각의 본질에 속해 있고, 지각적 대상을 최대한 모든 측면에서 소요되게끔 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볼 때, 신체의 움직임의 상황과 그림들의 출현이 서로 대응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제 3)의 감성적 종합이다.

한편, 지각대상을 최대한 모든 측면에서 소여되게끔 하도록 노력하는 경향은 그 지각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감각영역 (예, 시각적 영역과 청각적 영역)에서의 그림들의 현출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지각내용으로 만든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제 2)의 감성적 종합이다.

e) 경향의 방해와 양상의 발생

경향이란 대상의 계속적인 새로운 소여방식으로 향한 단순히 맹목적인 노력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각적 관찰이 확장되어 흐르는 가운데서 소여될 것에 연관되는 예지적 예기 (Antizipation), 즉 보이지 않는 배후에 관한 예기에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각단계는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예기적 지향으로부터의 일종의 방사체계 (Strahlensystem)인 것이다.³⁸⁾

그런데, 이러한 예기적 지향은 일반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충족되어 더욱 세밀한 규정 (Näherbestimmung)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방해를 받아 다른 규정 (Anderersbestimmung)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³⁹⁾

이처럼 지향의 충족방식이나 혹은 지향 자체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의 확실성 (Gewiβheit)의 양상 (Modus)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다. 확실성의 양상에는 1) 부정 (Negation) 2) 의심 (Zweifel) 3) 가능성 (Möglichkeit) 혹은 개연성 (Wahrscheinlichkeit)

36) EU. 88f. 이 때, “그림”이라는 용어는 §2에서 논의한 감각자료의 규정 3) 감각자료는 공간성을 떤다는 것에 직결되는 표현이다.

37) EU. 89.

38) EU. 93.

39) PS. 25.

등 세 가지가 있다.

1) 부정의 양상

부정의 양상은 “A는 B가 아니다” (*A ist nicht B*)는 판단의 형식을 구성하는 양상이다. 이는 “A는 B아닌 무엇이다” (*A ist \bar{B}*)라는 판단과 동치관계에 있다. 그러나, 실상 “A는 B아닌 무엇이다”는 판단이 “A는 B가 아니다”라는 판단 보다 앞선다. 왜냐하면, “A는 B가 아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A가 무엇이며 B가 무엇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A가 무엇이며 B아닌 C 혹은 D… 등이 무엇인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향과 충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자

지향은 현재의 통각에 의한 규정을 바탕으로 하는 다음의 통각에 의한 규정에 대한 예기적인 지향이다. 따라서, 지향은 “A는 B하다”는 형식을 지닌 통각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통각내용을 예기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통각에서 B아닌 것이 돌연히 나타날 경우가 있다. 이처럼 B한 것이 나타나리라고 지향했는데 B아닌 것이 나타났을 때 차자 (*Enttäuschung*)이 생겨난다. 차자이 일어날 때, 지향된 의미부분이 “그렇지 않고 다른” (*nicht so vielmehr anders*)이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지향과 새로운 의미 및 신념의 내용의 원본성 (*Originalität*)간의 상쟁 (*相爭*)이 생긴다. 그러나, 상쟁은 구신성 (*Leibhaftigkeit*)을 지니고 있는 새롭게 구성된 의미가 지향적 의미를 지각과정에서 쓰러뜨림으로써 곧 끝난다. 그리하여, 지향적인 확실성은 새롭게 원인상적으로 충족력을 지닌 새로운 확실성에 의해 지배되고 “~아닌” (*nichtig*)이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⁴⁰⁾

이렇게 볼 때, 부정은 다음의 두 조건을 전제로 하여 발생됨을 알 수 있다.⁴¹⁾ 첫째, 근원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정상적인 지각인 정상적인 근원적 대상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는 의식의 변양으로서의 부정이 변양되기 이전의 무엇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각 대상의 근원적인 구성에 있어서 예기적인 지향의 확실성이 본질상 혼동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의심의 양상

의심의 양상은 “A는 B이거나 C이다” (*A ist B oder C.*)라는 판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의 긍정의 양상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뿐 부정의 양상의 개입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선술어적인 지각과정에서 볼 때, 이 의심의 양상은 결국 긍정과 부정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의심의 양상은 선술어적인 지각과정에서 볼 때, 두 가지의 지각파악이 겹친 것이다. 이는 질료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구성요소가 서로 다르게 겹쳐지는 두 개의 파악의 공통적인 기저층을 이루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이는 두 가지 파악 중 어느 것도 사상되지 않고 각각 상충할 만한 자신의 힘을 지니고서 자신을 요구하는 상태이다.⁴²⁾ 이 때, 이 두 가지의 파

40) PS. 29f EU. 94f.

41) PS. 32. EU. 98.

42) PS. 33f, EU. 99f.

악내용은 동시에 구신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의심에서는 두 가지의 구신적 통각이 “의심스럽다” (*fraglich*)는 동일한 타당성의 양상 (*Geltungsmodus*)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⁴³⁾

3) 가능성의 양상

가능성의 양상은 “A는 B일 수도 있다” (*Es ist möglich, daß A B sei.*)는 판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의심의 양상에서는 적어도 A가 B이거나 C라는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확실성이나 결정이 들어 있다. 그러나 가능성의 양상에서는 어떠한 확실성이나 결정도 들어있지 않다.

이를 지각에 연관시켜 고찰해 보자.

한 의식이 확실성의 양상을 상실하고서 불확실성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언제나 가능성이 라는 것이 존립한다.⁴⁴⁾ 그런데, 가능성의 양상은 양상화하는 의식이 근원적으로 상이한 근원을 어떻게 지니는가에 따라 개방적 가능성 (*offene Möglichkeit*)과 호의적 가능성 (*anmutliche Möglichkeit*)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지각에서 현재의 통각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통각내용을 예기적으로 지향할 때 그 지향이 성립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범위가 통각적인 지평에서 성립되는 경우를 근원으로 하며,⁴⁵⁾ 후자는 한편으로 문제적 가능성 (*problematische Möglichkeit*) 혹은 의문적 가능성 (*fragliche Möglichkeit*)이라 일컬기도 하는 것으로서 의심의 경우에 있어서 호의적인 의심의 분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지향이 있을 경우를 근원으로 한다.⁴⁶⁾

개방적 가능성은 지향이 이루어지는 통각의 지평이 지니는 비규정적 일반성 (*unbestimmte Allgemeinheit*) 내에서의 자유로운 변경 (*Variabilität*)의 범위 내에서 성립되는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상쟁 (*Streit*)이나 비중 (*Gewicht*)이라는 요소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⁴⁷⁾ 그러나, 호의적 가능성은 상쟁에서 비중을 지니는 그 무엇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호의적 가능성은 의심의 양상에서 긍정의 양상 및 부정의 양상으로 결정되기 전에, 즉 “A는 B이거나 C이다”로부터 “A는 C가 아니고 B이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적대적인 편 (*feindlicher Partner*)을 부정하고 호감이 가는 편 (*anmutlicher Partner*)에 의식이 기울 때에 생기는 가능성, 즉 “A는 C가 아니고 B일 것 같다”는 경우에서의 가능성인 것이다.⁴⁸⁾

43) PS. 36, EU. 102.

44) PS. 39.

45) PS. 40, EU. 105.

46) PS. 43, EU. 108.

47) PS. 41, EU. 108.

48) PS. 42, EU. 103.

§ 9. 관찰적 지각

§ 8.에서 고찰한 수용의 과정을 거친 지향적 관심으로서의 자아경향은 이제 자아로 하여금 대상에 대하여 관찰적 지각 (*betrachtende Wahrnehmung*)을 하게끔 한다. 관찰적 지각은 a) 단적인 파악, b) 설명, c) 연관적 파악 등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⁴⁹⁾ 이러한 관찰적 지각의 제 단계는 그 내용이 아주 복잡하다. 그러나, 필자는 기본적인 고찰을 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a) 단적인 파악 (*schlichte Erfassung*)

단적인 파악은 그 단적인 성격 (*Schlichtheit*)에도 불구하고 하나라 할 수 있는 단순한 자료 (*Datum*)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시간적 통일성을 구성하는 구조들의 다양성이 관계한다.⁵⁰⁾ 이 때, 내적인 시간적 통일성은 지속 (*Dauer*)을 지니며, 이러한 지속은 현시점 (*Jetztpunkt*)과 연속적인 과거의 지평 및 미래의 지평을 지닌 구체적인 현재 (*konkrete Gegenwart*)라는 형태로 나타난다.⁵¹⁾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시간적 통일성으로서의 지속의 성립은 순수한 수동성의 영역에 속하는 파지 (*Retention*)와 예지 (*Protention*)라는 의식의 고유한 수동적 활동에 근거한다.⁵²⁾

그런데, 단적인 파악이 이처럼 수동적으로 선여되는 지속의 통일성을 파악한다고 할 때 그 파악이 순간적인 지금 (*Jetzt*)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연속적으로 현전하면서 지속되는 구체적인 현재를 파악하는 것이기에, 이 단적인 파악 역시도 마치 순수한 수동적인 영역에 속한 파지의 기능과 비슷한 “아직 보유함” (*Noch-Im-Griff*)이라는 기능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단적인 파악이 능동적인 자아의 작용이긴 하나, 이처럼 선여된 수동적인 내적인 시간적 통일성이 구성되는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의 복합적인 구조 (*Aufbau*)를 지닐 수 밖에 없기 때문에⁵³⁾ “능동성 속의 수동성”이라는 애매한 성격을 띠게 된다.⁵⁴⁾

단적인 파악이 내적인 시간적 통일성을 그 형식의 기반으로 함으로써 “아직 보유함”이라는 기능을 갖는다고 해서 그저 형식적인 파악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파악은, 지향적 관심으로서의 자아의 경향이 대상을 모든 측면에서 소여되도록 도모하는데서 이루어지는 감성적 종합의 결과로서의 최초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닌 통일된 감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단지, 감성적 종합이, 보편적 종합으로서 다른 모든 종합의 근거가 되는 통일된 내적인 시간적 지속을 구성하는 근원적 종합 (*Ursynthesis*)⁵⁵⁾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단

49) EU. 114f.

50) EU. 116.

51) ebda.

52) EU. 122.

53) EU. 119.

54) ebda.

55) PS. § 27.

적인 파악 역시도 그러한 시간적 형식에 연관된 기능을 지닐 뿐이다.

b) 설명 (Explikation)

단적인 파악에 있어서 대상은 감각영역에서의 통일된 감각적 의미였다. 그러나, 관찰하고자 하는 지각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전체대상⁵⁶⁾ (*Gesamtgegenstand*)의 상재 (Sosein), 즉 내적인 규정 (*innere Bestimmung*)에 관심을 갖는다. 이같은 전체대상의 상재에 관심을 가지고서 수행되는 관찰적 지각이 곧 설명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최고 단계의 종합인 범주적 종합 (*kategoriale Synthesis*) 혹은 설명적 종합 (*explikative Synthesis*)에 의해서이다.

1) 범주적 종합으로의 이행

단적인 파악으로 끝나는 감성적 종합에서 여러 감각영역에서의 개별적인 통일된 정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개별적인 정립들이 어떻게 전체대상에 속한 것으로 결합되어 파악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감성적 종합의 단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성적 종합은 주제화된 한 감각자료가 시간규정적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하게 현출될 때 그 감각의 다양성에 생화하는 파악작용이 가해짐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개별정립태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감성적 종합의 단계에서 주시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통일된 개별정립태가 구성된 바로 그 장소에서 다른 감각총 (예를 들면 시각적인 감각총에 대한 청각적인 감각총)의 주제화된 한 감각자료가 자아전향의 대상이 되어 그 한 감각자료가 역시 시간규정적인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감각의 현출을 드러내고 그 감각의 다양성에 새로운 생화하는 파악작용이 가해져 다른 감각총의 개별정립태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즉, 주제화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감각총의 개별정립태들이 구성된다 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정립태를 파악하는 관찰적 지각으로서의 단적인 파악이 이루어질 때 이 각각의 개별정립태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한 응시 (*Anstarren*)의 동시적인 대상이 되며 그리하여 다정립적인 (*polythetische*) 통일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다정립적인 통일성을 형성하는 작용이 바로 범주적 종합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적 종합이 수행될 때 단적인 개별적 정립들이 우연하게 결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내용을 지닌 개별적 정립에 대한 파악들이 우연히 결합된다는 것은, 소위 전체대상이라 일컫는 관찰적 지각의 주제적인 대상이 감각적인 내용의 확대 여하에 따라 그 상재의 범위가 결정되며 파악의 순간 순간에 그 상재가 완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대상의 상재는 파악의 순간 순간에 결코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감각적

56) 이 때의 전체대상이란 여러 감각영역의 통일된 감각적 의미에 대한 개별정립들을, 기저지워주는 분지들로서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대상이다. (vgl. *Ideen I.*, 293).

인 계기가 아닌 소위 제3의 성격을 지닌 계기를 통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즉, 감각적 의미들을 “규정” (Bestimmung)으로 지니는 “기체” (Substrat)라는 계기를 근거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체”와 “규정”的 구성이 없이는 전체대상에 대한 지각이 불가능하며 이 “기체”와 “규정”이라는 범주를 구성하기 위하여 범주적 종합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때, “규정”은 “속성” (Eigenschaft)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2) 범주, “기체”와 “속성”的 발생

그렇다면, 범주적 종합은 어떻게 “기체”와 “속성”이라는 범주를 발생시키는가?

우리가 “S는 α 이며 β 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때, 이는 세 가지의 파악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다. 즉, 파악 S, 파악 α , 파악 β 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대상 S에 대한 파악이 규정에 대한 파악 α 혹은 파악 β 에 선행하는가, 아니면 파악 α 와 파악 β 가 성립된 뒤에 성립되는가이다. 그런데, Husserl은 EU. 125f에서 파악 α , β 등으로 넘어갈 때 S를 인식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파악 S와 파악 α 의 구별이 처음부터 가능하며 게다가 파악 S가 파악 α 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지각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이미 반복적인 관찰적 지각의 단계를 거친 대상이 주제화되지 않다가 다시 주제화되면 그러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인 관찰적 시각이 선행되지 않은 생소한 지각대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온 지각에 대한 발생적 고찰에서는 바로 이러한 후자의 경우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코 파악 S가 파악 α 에 선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붉은 꽃에서 붉음이라는 감각만을 파악했을 때 그 붉음이라는 대상과 붉은 꽃이라는 전체대상에 대한 파악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소한 대상을 지각할 경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감각적인 파악이 있어야만 비로소 전체대상인 S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즉, 파악 α 에서부터 그 파악 α 가 수행된 동일한 장소에서 파악 β 가 성립되어 그 파악 β 로 넘어갈 때 이 파악 α 와 파악 β 가 동일한 그 무엇 바로 S에 대한 파악 α 이고 파악 β 임이 범주적 직관에 의해 파악되어 비로소 파악 S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악 S가 성립되고 나면 이 S는 지각의 주제가 되고 파악 α , 파악 β 등이 이 S에 관한 설명이 되고 규정이 되어 S가 상재에 있어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체로서의 대상”과 “규정 α , β ……”라는 두 가지 의미형성체로서의 57) 범주가 출현되는 것이다.

이 때, 기체 S에 대해 주제화하는 능동성은 “아직 보유함” (Noch-im-Griff-behalten)이라는 지향적 변양을 함으로써 이러한 기체에 대한 파악이 단계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개별

57) EU. 127.

성들 즉, α , β 등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한다.⁵⁸⁾ 즉, 설명항(Explikat)인 α 가 먼저 성립되고 그 후에 β 가 새롭게 성립될 때 α 는 이 기체의 보유함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유함에 남아있다는 것(Behaltenbleibon)은 능동적인 겹침(aktive Dekung)의 지향성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사실, 이 능동성의 겹침에 의해 설명항들이 S의 계속적인 의미규정적 침전으로서 S안에 편입되는 것이다. 즉, S는 α 의 설명 후에 $S\alpha$ 가 되고, 또 β 의 설명 후에 ($S\alpha$) β 등이 되는 것이다.⁵⁹⁾ 그리하여 S에 대한 내적규정(innere Bestimmung)이 이루어진다.

3) 계속적인 규정가능성으로서의 내적지평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설명적 관찰은 전체대상 S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S\alpha$ 가 ($S\alpha$) β 가 되고 $\{(S\alpha)\beta\}\gamma$ 등으로 계속적인 침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S가 규정되는데 이러한 규정방식을 더욱 세밀한 규정(Näherbestimmung)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더욱 세밀한 규정의 가능성은 S의 한계 내에서 무한히 열려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규정가능성의 무한한 가능성이 내적지평의 무한한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 4.에서 이미 지적한 바다.

c) 연관적 파악(Beziehungserfassung)

그런데 지향적 관심이 대상의 내적지평에로 설명하면서 침투해 들어가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대상과 함께 지각장 혹은 외적지평에서 발견되는 대상들을 더불어 주제화하고, 지각의 대상을 이 대상들과 연관시켜 관찰하는 단계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연관적 파악(Beziehungserfassung)의 단계이다. 이 때에는 내적규정과는 달리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상대적 규정(relative Bestimmung)이 나타난다. 이러한 외적, 상대적 규정들은 지각의 외적지평, 즉 현재의 지각장에 있는 다른 대상들의 공소여성(共所與性)과 그것들이 나타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등에 의존하고 있다.⁶⁰⁾ 이 연관적 파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각장내의 다른 대상에 대한 설명적 관찰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d) 완전한 규정의 불가능성

설명적 관찰에서 더욱 상세한 규정을 위한 내적지평이 논리적으로는 무한히 열려있고, 연관적 파악에서 상대적 규정을 위한 외적지평이 무한히 열려 있는 한, 외적지각이 수행하는 근원적인 초월적 의미부여의 본질에는, 이러한 원본적인 의미부여작용이 한 지각지속으로부터 다른 지각지속으로 계속됨에 있어서 결코 완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속해 있다. 따라서, 철저히 규정되고 철저히 알려진 대상, 즉 완전히 규정된 대상자체 혹은 소위 절대적인 개별

58) EU. 132.

59) EU. 133.

60) EU. 114f.

적 본질의 획득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획득은 지각의 이념에 속할 뿐이다.⁶¹⁾

e) 실천적 관심에서의 타당성과 회의론의 극복

이렇게 볼 때, 모든 인식과정에 있는 지각대상은 흘러가는 근사치로서 존립할 뿐이며, 따라서 모든 인식은 처음부터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Husserl은 성급한 회의론과 결탁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Husserl은 내재적 지각의 경우와 실천적 관심에서의 타당성을 들어 변호하고 있다.

내재적 지각에 있어서는 지각이 내재적 대상들을 구성하고 그 대상들을 절대적 본질과 함께 자신의 것으로 한다. 내재적 대상들은 근사치라는 의미에서의 지속적인 의미변화를 통하여 구성되지 않는 것이다.⁶²⁾

그러나, 외적지각의 경우 이같은 완전한 규정불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하여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회의론적인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Husserl이 들고 나온 것이 실천적 관심에서의 타당성이다.

애초, 지각에 있어서 그 과정을 유지해 온 것은 지각대상에 대한 지향적 관심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 혹은 실천적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한 지각대상에 대한 관심을 무한히 지속하지 않는다. 지각이 대상에 대한 포화된 충족을 목표로 삼아 진행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굳이 극단적으로 포화된 충족을 이루고자 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지각과정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관심을 지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Husserl은 “지각대상에 대한 실천적 관심은 그 사물에 대해 요구하는 어느 정도가 있으며, 이 요구하는 정도의 관심이 최선으로 충족될 때 그러한 지각의 관심은 진정된다. 실천적으로 충분한 것은 그 자체로서 타당하다.”라고 함으로써⁶³⁾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결 론

Husserl의 발생적 지각론은 시간규정적인 흘러가는 통일된 체험류를 바탕으로 한다. 이 체험류는 지각에 연관된 때 연속적인 지각의 흐름이 된다. 그런데, 이 지각류는 수많은 개별적인 발생적 지각단위의 연속이다. 이 때 발생적 지각단위는 다음 도표의 여러 지각과정을 거쳐 완결된다.

61) PS. 20.

62) PS. 21.

63) PS. 23.

<도 표>

지각 단계	축 발		수 용				관찰적 지각	
	대상의 드러남	축 발	자아전향	주의	감성적 종합	단적인 파악	설명	연관적 파악
대상	비주제화된 여러 감각자료	비주제화된 한 감각자료	주제화된 한 감각자료	주제화된 감각자료의 현출 다양	주제화된 감각자료의 현출 다양	주제화된 감각자료의 현출 다양 또는 개별 정립태	두가지 이상의 개별정립태 및 전체대상	주제화된 둘이상의 전체대상
	전형이 주는 비규정적 일반성							
연관 조건	가능적 외적지평	대조와 자아의 육체구	축발력의 강도	내적지평				외적지평
	동질성과 이질성의 용해와 대조			신체의 운동감각적 동기부여				
작용	유사성의 연상	대상에의 겨냥(Abzielung)		얻으려고 노력함 (Erzielung)				
	배경체험			능동성 내에서의 수동적인 아직 보유함.	능동적인 아직 보유함.			
작용 결과	비주제화된 한 감각자료의 드러남	자아의 대상에의 경향. 대상의 대자아적 상태	지향적 관심으로 서의 자아 경향	통일된 감각의 개별정립태 (Noema)	여러 개별정립태 형성가능	범주, 기체와 속성. 내적 규정. 더욱 상세한 규정. 인식	상대적 규정.	

이러한 발생적 지각단위가 한 대상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은 단 한번의 발생적 지각단위로 거치지 못한 채 중도에서 그쳐 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제 생활에서의 지각대상들은 엄청난 반복적인 지각을 거치기가 일쑤다. 그런가 하면 단 한번의 발생적 지각단위를 거치지 않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전형이 주는 비규정적인 일반성 만은 최소한 지나고 드러난다. 이에 지각의 역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Husserl의 발생적 지각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Husserl의 발생적 지각론은,

- 1) 흘러가는 통일된 지각류를 지각의 대상으로 하며 이 통일된 지각류를 자신의 구성 내용으로 지니는 모나드로서의 구체적인 자아를 지각의 주관으로 삼는다.

- 2) 유사성의 연상에 의해 구성된 어느 정도 분절된 비주제화된 여러 감각자료로 이루어진 지각장이 선소여됨을 전제로 한다.
- 3) 대상이 최소한 전형이 주는 비규정적인 일반성을 지닌다고 함으로써 완전한 의미에서의 의식외적인 세계를 거부하고 있다.
- 4) 전체대상에 대한 지각이 필연적으로 감각자료에 대한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본다.
- 5) 전형이 주는 비규정적인 일반성과 반복적 지각에 의한 침전된 인식내용을 고려함으로써 지각의 역사성을 바탕한 실제적인 지각과정을 고찰한다.
- 6) 운동감각에 의한 동기부여를 고려함으로써 신체의 작용을 중요시 한다.
- 7) 지각대상이 지각하는 단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다.
- 8) 지각을 실제적 혹은 실천적 생활에서의 지각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볼 때, Husserl의 발생적 지각론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지각론을 철학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1. Husserl의 저작

- PS; Analysen zur passiven Synthesis, Den Haag, 1966(Hua. XI)
 EU; Erfahrung und Urteil, Redigiert u. hrsg. v.L. Landgrebe, Felix-Meiner-Verlag. Hamburg, 1972.
 Ideen I ;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Erstes Buch, Den Haag, 1950 (Hua. III).
 Ideen II ;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Zweites Buch, Den Haag, 1952. (Hua. IV.)
 CM; Cartesianische Meditationen und Pariser Vorträge, Den Haag, 1963 (Hua I)
 Krisis;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 und die transzendentale Phänomenologie, Den Haag, 1962. (Hua. VI)
 EPh I ; Erste Philosophie(1923/1924), Erster Teil, Den Haag, 1956. (Hua. VII)
 EPh II ; Erste Philosophie(1923/1924), Zweiter Teil, Den Haag, 1959.(Hua.VII)
 FTL ; Formale und transzendentale Logik, Haag, 1974. (Hua. XVII.)
 LU II /2 ; Logische Unterschungen, Zweiter Band, I. Teil,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80.

2. 기타

- 尹明老, “현상학에 있어서의 경험의 의의(I)” 철학연구 제 12집. 철학연구회 편. 1977.
 韓基淑, “현상학에 있어서의 경험의 의의(II)” 철학연구 제 12집. 철학연구회 편. 1977.

- A. Aguirre, Genetische Phänomenologie und Reduktion, Den Haag, 1970.
- H.U. Asemissen, Strukturanalytische Probleme der Wahrnehmung in der Phänomenologie Husserls, Kölner Univ-verlag, Köln, 1957.
- G. Eiger, Metaphysische Voraussetzungen in Husserls Zeitanalysen, Meisenheim am Glan, 1961.
- U. Claesges, Edmund Husserls Theorie der Raumkonstitution, Den Haag, 1964.
- E. Holenstein, Phänomenologie der Assoziation, Den Haag, 1972.
-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 Colin Smith, London, 1962.
- J.N. Mohanty, Edmund Husserl's Theory of Meaning, Martinus Nijhoff / Haag, 1969.
- A. Pazanin, Wissenschaft und Geschichte in der Phänomenologie Edmund Husserls, Den Haag, 1972.
- W. Schapp, Beiträge zur Phänomenologie der Wahrnehmung, philosophische Akademie, Erlangen, 1925.
- H. Spiegelberg,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Vol. I., The Hague, 1950.
- D. Sinha, Studies in Phenomenology, Den Haag, 1969.
- R. Sokolowski, The Formation of Husserl's Concept of Constitution, Den Haag, 1964.
- B. H. Son, Science and Person, VAN GORCUM & COMP. B.V. Assen, 1972.